



## 1. 머리말

남한산성은 「중정남한지」, “한남루기”에서 “한강을 남쪽으로 돌렸다고 해서 성진의 이름으로 한 것”<sup>1)</sup>이라고 밝힌 것처럼, 한강과 더불어 삼국의 패권을 결정짓는 주요 거점이었다.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이후 백제인들에게 남한산성은 성스러운 대상이자 진산으로 여겨졌다. 남한산성 안에 백제의 시조 온조를 모신 사당 숭열전이 자리 잡은 배경에도 이러한 연유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서 동남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위치한 남한산성은 치욕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조선 16대 임금인 인조는 남한산성의 축성과 몽진, 항전이라는 역사의 회오리를 이곳 산성에서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은 인조 2년(1624)부터 축성 공사가 시작되어 인조 4년(1626)에 완공되었다. 이어 산성 내에는 행궁을 비롯한 인화관, 연무관 등이 차례로 들어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역사를 간직한 남한산성은 1894년 산성 승변제도가 폐지되고, 일본군에 의하여 화약과 무기가 많다는 이유로 1907년 8월 초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sup>2)</sup> 그 후 방치되어 있던 남한산성의 행궁은 최근에 복원되어 그 위용을 자랑한다.

조선 시대 행궁은 ‘임금이 머문 곳에 복이 깃든다(幸行)’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임시거처를 말한다(윤해근, 2007: 1). 행궁은 여러 목적으로 건립되는데 특히 남한산성의 행궁은 전사를 대비한 행궁이다. 비록 전사를 대비한 행궁이라 하지만 국왕이 머물기 때문에 산성 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입지를 선정하였으리라는 전제는 가능하다. 그래서 산성에서 가장 아

름다운 형상으로 우뚝 솟은 청량산(479m)을 주산으로 하여 등지를 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산 정상에는 군대를 지휘하는 수어장대가 자리하고 있고, 행궁과의 연관성도 갖추고 있어,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 어려웠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행궁의 입지는 전통적 지리관을 바탕으로 선정하였으며 자연지형과의 조화를 통해 자연과 하나 되는 전통건축의 특징을 구현하였다. 또한 인공적인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반을 조성하여 높낮이를 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석조기단의 높이는 곧 당초 지형의 특징적인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높은 기단의 축조는 경사도가 컸다는 것으로, 전순부위에 석조기단을 조성한 것은 평탄지형에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당초의 지형 조건과 험처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는 곧 풍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지만, 남한산성과 행궁 입지에 반영된 풍수적 특징을 연구한 논문은 소략한 실정이다. 윤해근(2007)은 남한산성 행궁의 입지가 가지는 특징을 형세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면, 홍승혁(2011)은 남한산성 행궁의 공간구성을 양택론의 오희실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한산성과 행궁 입지의 풍수적 특징을 「조선왕조실록」과 「비변사등록」 그리고 「중정남한지」 등의 문헌자료를 고찰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형세적 관점과 이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행궁 유적으로서 전체적인 입지의 특징을 간직한 곳으로 화성행궁과 남한산성 행궁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그 용도와 입지적 특징, 건립시기와 방식 그리고 역사적 사실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선정하였다는 공통점은

1) 홍경모, 2005, p316(漢以南之名城鎮).

2) 남한산성 행궁. 인사이트 코리아(<http://inkorea.naver.com/>). [2012. 1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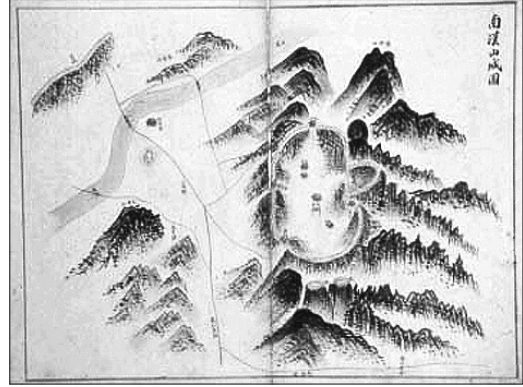
같다. 또한 원래의 원형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근래에 복원하였다고는 하나, 인조와 정조가 깊은 관련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 II. 문헌 고찰

「삼국사기」에는 신라 문무왕 12년(672)에 주장성을 쌓았다<sup>3)</sup>는 기록이 있는데, 「중정남한지」 「남한」에는 “남한산성은 백제의 옛터이며 신라의 주장성”<sup>4)</sup>이라 한다. 그러면서 “역사에 이르기를 백제의 온조왕이 도읍을 한산 아래로 옮겼다고 하였으니, 광주의 옛 읍치가 바로 그 땅이다. 산 아래라고 하였으니 성을 산 위에도 쌓고 도읍한 것은 아니다. 대개 한산은 그 도읍에서 5리 거리에 있다. 그 후 신라가 그 땅을 취하여 비로소 성을 쌓은 것이지 이 성은 백제가 쌓은 것이 아닌 것 같다.”<sup>5)</sup>고 한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야승」, 「연려실기술」, 「여지도서」, 「대동지지」 등 대부분의 조선 시대 지리지 자료는 남한산성이 백제의 고성임을 밝히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백제시조 온조왕이 한나라 성제 홍가 3년(18) 계묘에 국도를 위례성에 세웠다. 13년 을묘에 이르러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내가 보매, 한수 남쪽의 땅이 기름지고 걸으니, 마땅히 여기에 도읍을 세워서 장구한 계교를 도모하고자 하노라.’ 하고, 드디어 한산 아래에 나아가 목책(柵)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를 옮기며, 궁궐을 짓고, 14년 병진 정월에 도읍을 옮기고 남한성”<sup>6)</sup>

그림 1 \_ 남한산성도



자료: 서울대 규장각.

이라 하면서, 검단산을 진산이라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본래 백제의 남한산성이다. 시조 온조왕 13년에 위례성으로부터 이곳으로 도읍을 옮겼고, 근초고왕 26년에 또 도읍을 남평양성으로 옮겼다.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쳐서 없애고, 당나라 군사가 돌아간 뒤에 신라가 그 땅을 점차 거두어 남한산성을 고쳐 한산주라 하고, 또 남한산주라고도 불렀다.”<sup>7)</sup>고 한다. 「임하필기」에는 “본래 백제의 온조왕이 쌓은 것”<sup>8)</sup>이라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한산성은 본래 백제 온조왕이 쌓은 것으로, 백제가 망한 이후에 신라가 차지하고, 다시 쌓은 것으로 보인다. 산성으로서의 역할과 의미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남한산성 행궁과 관련한 문헌자료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인조실록」과 「임하필기」, 「중정남한지」를 통해 건설 경위와 과정, 그리고 건물의 구성에

3)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12년.

4) 홍경모. 2005. p15(南漢山城 百濟之舊而 新羅之畫長城也).

5) 홍경모. 상계서. p15(史云 百濟溫祚王 遷都於漢山下 廣州之舊邑治即其地 而日山下 則非築城於山上而都也 蓋漢山在其都五里 而其後新羅取其地 始築城於山上是城也 非百濟之所築).

6) 世宗實錄. “地理志”. 京畿 廣州牧.

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6. “京畿 廣州牧”(本百濟南漢山城 始祖溫祚王十三年 自慰禮城移都之近肖古王二十六年 又移南平壤城 今京都 及唐蘇定方功滅百濟唐師還 新羅漸牧其地改南漢山城爲漢山州 又稱南漢山州).

8) 林下筆記. 卷13. “文獻指掌編”(南漢山城 築城: 本百濟溫祚王所築也).

대해 살펴본다. 먼저 「인조실록」에 따르면, 남한산성에 행궁을 건설한 것은 인조 3년에 이서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sup>9)</sup> 즉, 이서의 주장이 반영되어 건설된 것이다. 그 후 행궁의 건설과정을 살펴보면, 「임하필기」에 그 일단이 드러나는데, “도첩을 사용해서 승도들을 포섭하여 행궁을 지었다.”<sup>10)</sup>고 한다. 이처럼 국가의 중요 건설공사에 승려들의 노동력이 동원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행궁의 건물 구성은 “상궐은 72칸 반이고 하궐은 154칸이며, 숙종 37년(1711)에 증건(增建)하였는데 좌전(左殿)은 26칸이고, 우실(右室)은 4칸”<sup>11)</sup>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정남한지」 「궁실」에는, “살피건대, 상·하궐은 곧 인조 병자년(1636, 인조 14년)에 임어하였던 행전”<sup>12)</sup>이라고 하여, 병자호란 당시에 인조가 이곳에서 전쟁을 지휘하던 행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인조 4년에 남한산에 성을 쌓고 이어 수어청을 설치한 다음 광주 등의 진영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남한산은 일명 일장산이라고도 하는데, 본래 백제의 온조왕이 쌓은 것으로 서울과의 거리가 40리인바 바로 천연의 요새다. 그런데 이괄의 반란이 있는 뒤에 이원익과 이귀가 여기에 성을 쌓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드디어 이서에게 명하여 이 일을 맡아서 하도록 했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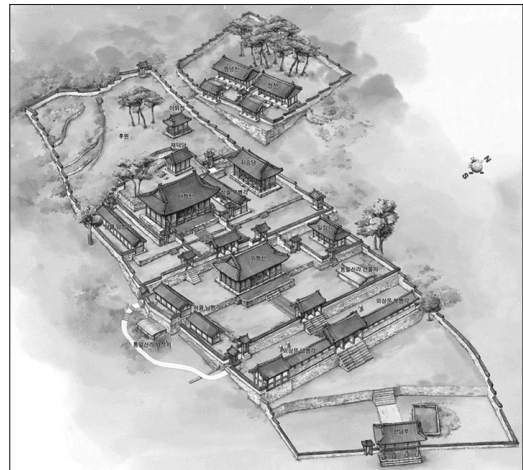
인조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르는 하지만, 왕권의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반정공신들에 의해 왕위에 올려진 상태였다. 그러던 차에 반정공신 책봉 과정에 불만을 품은 이괄의 반란으로 공주까지 피난을 가야 하는 현실은, 그의 입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그 후 인조는 영의정 이원익과 연평부원군이

### III. 남한산성과 행궁의 역사와 입지선정 배경

#### 1. 남한산성과 행궁의 역사인식

조선 시대에 이르러 남한산성은 유사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도성을 지켜주는 보강지로 인식되었고, 광해군 13년(1621)에 후금의 침입을 막고자 석성으로 개축하기 시작하였으나, 준공치 못하였다. 그 후 이괄(1587~1624)의 난을 겪은 후 인조 2년(1624)에 다시 시작하여, 인조 4년(1626)에 준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진행상황을 「임하필기」에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림 2 \_ 남한산성 행궁 배치도



자료: 남한산성.

9) 仁祖實錄, 3년 6월 23일(己亥).

10) 林下筆記, 卷13. “文獻指掌編”(南漢山城 築城: 用度帖 攝僧徒 設行宮).

11) 林下筆記, 卷13. “文獻指掌編”(廣州府: 上關七十二間半 下關一百五十四間 肅宗三十七年增建 左殿二十六間 右室四間).

12) 洪경모, 2005. p48(按上下關卽 仁祖丙子臨御之行殿也).

13) 林下筆記, 卷13. “文獻指掌編”(南漢山城 築城: 仁祖四年 城南漢山 仍設守禦廳 兼摠廣州等鎮 南漢山一名日長山 本百濟溫祚王所築也 距京都四十里 天作保障 適亂之後 李元翼李貴 請築城 遂命李曙 掌其事).

귀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한산의 수축을 인조 2년 7월에 지시한다. 인조는 산성의 축조를 위해 총용사이서와 남한도원수 심기원을 남한산성차지당상으로 임명하는데, 이들에 의해 남한산성의 축성이 주도된다. 그러나 실제 산성의 축성은 광주목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역군과 축성에 익숙한 유림의 부임은 더욱 축성의 진행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서가 주장한 승군의 동원은 인력충원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외에 훈련도감은 군 인력을 지원하여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힘을 보태게 되며, 이괄의 난을 틈타 도망한 포수들을 동원하기도 하였다(윤해근, 2007: 10-11). 이때 행궁의 건설도 함께 이루어져, 인조 3년(1625)에 착공하여 인조 6년 11월에 완공되는데, 상궐 73칸, 하궐 154칸 등 총 3단 227칸으로 이루어진 행궁이었으나, 모두 불에 타서 없어졌다가 최근에 복원되었다. 비록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한 행궁이지만 행궁의 공간구성은 「주례」 “고궁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궁실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구성원리인 삼문삼조의 구성을 실천하였다. 칩전인 상궐은 위쪽에 외전인 하궐은 아래쪽에 객관에 해당하는 인화관은 하궐의 우측 아래에 배치하였다. 「중정남한지」 “궁실”에는 이러한 공간구성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상궐은 일장산 아래에 있는데 내행번이다. 인조 갑자년(1624, 인조 2년)에 산성을 개축하고 읍치를 성 안으로 옮길 때 행전과 관아 및 창고를 세웠는데, 총용사이서가 그 역사를 주관하고 목사 유림이 감독하였다. 좌우 방헌과 익랑

이 무릇 70여 칸 이상으로 이듬해 을축년에 이르러 준공하였으니 이것이 곧 전이다. - 중략 - 하궐은 외행전이다. 상궐 삼문 밖에 있으며, 동시에 지었다. 뒤를 따라 꺾어 들면 서쪽으로 응청문이 있어 좌승당으로 통한다. 서쪽 담에 문이 있는데 일장각으로 통한다. 삼문 밖에 교련관청이 있으며 또 문이 있고 그 밖에 각 청이 있다. 정남 쪽 10여 보에는 외삼문을 세웠는데 위에 누가 있고 편액을 한남루라 하였다.<sup>14)</sup>

앞에서 논한 천연요새라는 점과 아울러 물과 식량 조달이라는 측면을 제시한다. 여기에 더해서 백제의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배경까지 아우르고 있다는 점은, 당시의 지리인식을 살펴보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2. 남한산성과 행궁의 입지선정 배경

「다산시문집」에서 다산은 “국운이 장구히 이어가는 것은 도움을 정하는 데 달린 경우가 많다. 반드시 요새지에 웅거하여 위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길러서, 견고하여 요지부동하게 민심을 잡아매어야 한다. 그래야만 일단 유사시에는 명령이 행해져서 모든 힘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가 있는 것”<sup>15)</sup>이라 하였다. 「동국이상국집」에도 “병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천시·지리·인화의 도움을 얻는 일”<sup>16)</sup>이라 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근간으로 남한산성은 서울의 보장지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험준한 산성을 건설한 것이다.

14) 홍경모, 2005. p47(上闕日長山下內行殿也 仁祖甲子改築 城移邑治於城內建行殿及廡宇倉廩 摠戎使李曙尸其後牧使柳琳 董之左右房軒及翼廊凡七十餘架至 翌年乙丑告竣 卽是殿也. -중략- 下闕外行殿也 在上闕三門外同時并建 從背後折而西有凝清門通坐勝堂 西牆有門通日長門 三門外有教鍊官廳又有門 外有各廳正南十餘步建外三門 上有樓扁曰漢南樓).

15) 茶山詩文集, 卷12. “論”(百濟論: 國之久長 多由定都 必能據形要之地 積威制之勢 堅鞏不動 維繫衆心而後 一朝有患 其命令行而勢力湊矣).

16) 東國李相國集, 卷38. “道場齋醮疎察文”(正旦行天皇醮禮文: 兵家所先得天地人之助).

도시건설의 풍수적 특징을 연구하는 분야를 양기 풍수라 분류하는데, 개인 주택의 입지 등을 살피는 양택풍수와 차별화된 의미를 가진다. 물론 남한산성의 입지선정에도 양기풍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활용되었으며, 행궁의 입지도 성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시와 같은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축조한 성(城)과 같은 건축물의 입지선정에서 풍수는 어떤 활용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여헌집」과 「우복집」에서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여헌집」에는 “성을 만들고 현을 설치함은 진실로 풍수에 맞다.”<sup>17)</sup>고 하여, 성을 쌓고 현을 설치하는 경우에 풍수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이에 대해 「우복집」에는 “성을 쌓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지리를 제대로 얻는 것이 어려운 법”<sup>18)</sup>이라고 하여 풍수에 부합하는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한다. 이처럼 「여헌집」과 「우복집」을 통해, 성의 건설과 입지선정은 풍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한산성 입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둥그렇게 둘러싼 산들에 의해 형성된 보국과 명당을 갖추고 있어 장풍국의 형국이다. 이에 대해 선조는 “일찍이 남한산성의 형세가 으뜸이라 들었다.”<sup>19)</sup>고 하여, 풍수에 충실한 입지선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지형적 조건만을 살펴보면, 남한산성의 청량산보다 높은 검단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선택하지 않고 남한산성을 선택하였다.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가진 검단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 산성을 건설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입지선택

그림 3 \_ 남한산성도



자료: 서울대 규장각.

의 배경에는 합당한 요인이 존재하였으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식수와 식량의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남한산성의 입지는 이러한 특징적 조건을 충족하였다.

둘째, 남한산성은 천연의 요새로서 가져야 하는 특징을 갖추었다. 이러한 남한산성의 특징적인 모습은 선조 대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른다. 이때 선조는 남한산성의 지세 파악을 지시하는데, 비변사 당상인 이기빈(1563~1625)은 남한산성을 직접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둘러싸인 가운데에 완연히 한 도읍이 이루어졌는데, 서북쪽에는 높은 봉우리가 있고 동서쪽은 확 트여 시냇물과 논이 있으며 꼬불꼬불한 산굽이가 몹시 깊어 바깥에서 굽어보거나 엿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백제가 이곳을

17) 旅軒集. 卷4. “雜著”(議復立遼藪文: 立城置縣 固有得於風水之會也).

18) 愚伏集. 卷15. “記”(城津山城嶺海樓記: 築城非難 而得地之爲難).

19) 宣祖實錄. 卷159. 36년 2월 18일(을사).

국도로 삼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곳에다 성을 쌓은 다음 한결같이 독성에서처럼 군사를 조련하여 안으로는 경도의 보장이 되고 바깥으로는 제진을 공제하게 한다면 참으로 장구한 계획이 될 것으로, 성령이 미치신 바가 실로 뛰어나신 것입니다.<sup>20)</sup>

이기빈은 남한산성 입지의 특징을 물과 식량 조달이 가능한 천연요새라 인식하였고, 아울러 군사적 조련이 가능하여 서울의 보장지로서의 조건을 갖췄다고 보았다.

행궁의 건설은 다양한 목적을 바탕으로 건설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즉, 행궁은 상황요인에 의해 전시와 휴양 그리고 능행길에 머무는 행궁으로 분류한다. 먼저 전시상황에 머물렀던 행궁으로는 강화행궁과 의주행궁 그리고 남한산성의 광주부행궁이 있다. 반면에 휴양을 목적으로 한 행궁은 온양행궁이 있다. 마지막으로 능행길에 머물던 행궁으로는 화성행궁이 해당한다.<sup>21)</sup>

전시를 대비하기 위해 험준한 산성 안에 입지한 행궁은 어떤 의미로 건설한 것일까? 이에 대해 「중정남한지」 「궁실」에는 “살피건대 상·하궐은 곧 인조 병자년(1636, 인조 14년)에 임어하였던 행전이다. 무진년(1788, 숙종 14년), 경술년(1730, 영조 6년), 기해년(1779, 정조 3년) 영릉에 행차하였을 때 길이 산성을 경유하게 되므로 여기에 머물렀으나 왕이 거동할 때 머물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유수의 집무실

로 지은 것”<sup>22)</sup>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한산성의 행궁은 행궁의 역할보다는 유수의 집무실 성격이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행궁이라 부르고 행궁의 역할도 일부 하였다라는 점은 특수한 경우라 하겠다. 특히 병자호란 당시에 인조가 머물면서 전쟁을 지휘한 곳이라 행궁의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 IV. 남한산성과 행궁의 풍수환경

##### 1. 풍수 주산으로서의 청량산

남한산성과 행궁의 주산인 청량산에 대해 「중정남한지」 「형승」에는 “청량산은 옛날 일장산이라고도 하였고, 또한 남한산이라고도 하였다. 광주의 가운데 땅에 연이어 없드려 웅거하고 있으며, 안은 넓고 밖은 막혀 있어 하늘이 만든 높은 성이다. 북으로 한수를 두르고 남으로는 여러 고을을 제어한다. 토지는 기름지고 민물은 성하여 무릇 장자지근에 진양의 견고함을 겸하였으니, 서울의 보장”<sup>23)</sup>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일장산은 남한산이라고 하며, 용인의 보개산으로부터 왔다. 곧 광주부의 진산이며 산 위에 성이 있다. 조선 중엽부터 돌연 청량산이라고 칭해서,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이 내침할 징조라고 하였다. 산에 기우단이 있다”<sup>24)</sup>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정조실록」에도 정조의 질문으로 소개하고 있다. 주산인 청량산의 명칭 변화와 아울러 청량산으로 불리면서 일어났던 일화들을 소개하였다.<sup>25)</sup>

20) 宣祖實錄. 卷159. 36년 2월 18일(을사).

21) 행궁. 수원화성(<http://hs.suwon.ne.kr>). [2012.10.11].

22) 홍경모. 2005. p47(按上下關即 仁祖丙子臨御之行殿也 肅宗戊辰 英宗庚戌 正祖己亥幸 寧陵時道由山城經宿 于此而非車駕所駐之時作 爲留守坐衙之所也).

23) 홍경모. 상계서. p25(靑涼山舊稱日長山 亦稱南漢山 逡遷蟠據于廣之中壤 內曠外截天作高城 北帶漢水南控列郡 土地膏腴 民物經富 蓋以長子之近兼晉陽之固 爲保障於畿輔者也).

24) 홍경모. 상계서. p17(日長山 亦稱南漢山來 自龍仁之寶蓋山即府之鎮山 而城在山上 國朝中葉以來忽又稱靑涼山 人以爲清人來侵之徵 山有祈雨壇).

청량산은 남한산과 행궁의 주산이지만 곧 당시 광주부의 진산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정남한지」 “형승”과 “산천”에서 소개된 내용에는 지명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형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중정남한지」 “형승”에서 ‘광주의 가운데 땅에 연이어 엮드려 웅거’하고 있다고 하여 웅장한 모습을 소개한다. <그림 4, 5>와 같이 청량산은 웅장하며 아름답기까지 한 모습이다.<sup>26)</sup> 여기에는 웅장한 모습을 강조한 측면도 있지만, 딱히 다른 모습은 찾기 어렵다는 측면도 아울러 가졌다고 할 것인데, 「중정남한지」 “유차산루기”에는 “서울 남쪽 40리에 산이 있으니, 일장산 또는 청량산이라고 한다. 그 산의 됴됨이가 속은 평평하고, 밖은 끊어져 성가퀴를 매달은 듯 높게 솟은 가마술 같은 듯하여 이른바 천험의 땅”<sup>27)</sup>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푸근하고 아름다운 품을 내주어 성 안의 공간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하였다. 반면에 성벽이 있는 곳은 가파른 절벽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풍수에서 산의 모습을 면배(面背)로 구분한 것을 잘 표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에서 입지선정을 할 때 주산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다. 웅장하여야 하고 빼어난 모습도 아울러 갖춰야 하며, 뒤를 든든히 받쳐주는 배산(背山)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를 「동계집」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일장산 산빛이 푸르게 우뚝 솟았나니  
천지의 바른 기운 많이 모아 간직했네  
남쪽 북쪽 어디 가든 동일한 의리이니

그림 4 \_ 청량산과 행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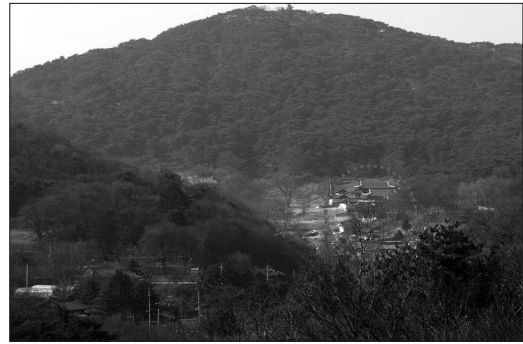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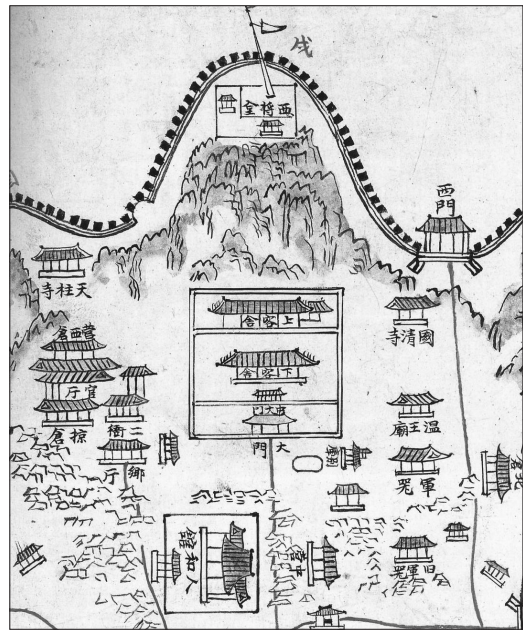


그림 5 \_ 남한산성도 중 행궁 부분



견고한 금석처럼 결코 닳은 적이 없네<sup>28)</sup>

이러한 청량산 정상에는 수어장대가 있는데, 「중정남한지」 “성지”에는 “광주부의 뒤 산기슭에 있

25) 正祖實錄, 卷8, 3년 8월 7일(무오).

26) 남한산성 행궁의 주산인 청량산의 형상은 무곡 금성체임. 이러한 무곡 금성체는 탐랑 목성체, 거문 토성체와 함께 三吉星이라 함. 호순신의 「地理新法」에는 “무곡은 주로 富를 주관하며 旺氣를 얻어 旺盛하다(武曲主富 以得旺氣而盛也)”고 하였음. 「地理人子須知」에도 “금의 체는 둥글고 뾰족하지 않으며, 금의 성품은 고요하며 동요하지 않는다(金之體圓而不尖性靜而不動)”고 하면서 “官星이니 文章, 顯達, 忠正, 貞然(官星 主文章顯達忠正貞然)”이라고 하여, 호순신의 「지리신법」과 같은 주장을 함.

27) 홍경모, 2005, pp326-327(京城南四十里有山曰日長亦清涼 其爲山中夷而外截若懸堞若仰釜然蓋所謂天險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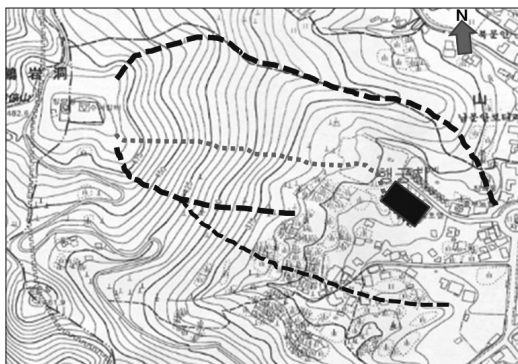
28) 桐溪集續集, 卷3, “附錄”(御製詩: 日長山色碧嵯峨 鍾得乾坤正氣多 北去南來同一義 精金堅石不曾磨).

으니 지형이 높고 시원하며 앞이 트여 멀리 조망된다.”<sup>29)</sup>고 하였다. 즉 청량산이 남한산성을 대표하는 산이라는 의미를 함축한 것이다.

## 2. 한남정맥의 자락을 차지한 주룡

「산경표」에 따르면 남한산성의 주산인 청량산은 한남정맥에 속한다. 속리산에서 출발하여 칠현산에 이르는 금북한남정맥은 다시 행룡하여 한남정맥을 이룬다. 즉, 칠현산-백운산-구봉산-대소곡둔현-성류산-수유산-부아산-보개산-석성산-선장산-문수산-추현-갈마현-이지를 거쳐 남한산성에 이르는 한남정맥의 한 자락을 차지한다(윤해근, 2007: 18). 남한산성과 행궁의 주룡은 <그림 6>과 같이 청량산의 중출맥(中出脈)이다. 남한산성의 진산인 청량산 중심에서 개장천심(開帳穿心)하여 중출맥을 뺀어 내린다. 위이기복(逶迤起伏)하며 행룡한 용은 급하게 흘러내려 행궁의 뒤편 이위정(以威亭)에 이르면서 급격히 부드럽고 순한 모습으로 순룡의 자세를 잡는다(<그림 7> 참조).

그림 6 \_ 행궁의 주룡 등고선(1/5,000)



29) 홍경모, 2005. p31(在府後麓上地 形高快瞭望闊遠).

30) 통통하고 살찐 모습으로 풍만한 모습을 肌附라 하며 방석을 깔아놓은 것처럼 평지를 이룬 모습을 飽氾이라 함.

31) 양균송, 2009. p214(正龍低平最貴重).

그림 7 \_ 주룡과 이위정



「지리인자수지」에 따르면 “무릇 용의 진은 조종이 회이하고 출신이 활동적이고 행도함에 있어서 혹 개장천심하고 성봉이 수려하고, 요도와 지각이 있고, 기복과 돈질이 있으며, 박환과 전변이 있고, 과협내맥이 있으며, 파포유양이 있고, 굴곡분주가 있어, 가애하는 세가 있으며, 입수에 이르러 혈정이 명백하고, 하수가 유력하며, 명당이 평정하며, 전안이 특달하며, 사수가 유정하며, 수성수구가 법도에 합한 것”(서선계·서선술, 1992: 238)이라고 한다.

주룡의 행룡과정에서 혈을 맺는 곳은 기부포전(肌附飽氾)<sup>30)</sup>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를 「의룡경」에는 “진룡은 낮고도 평탄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sup>31)</sup>고 하였다. 이러한 혈처의 모습은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양택지에 있어서 평지를 조성하는 모습과 일치한다. 그리고 다시 전순부위에 해당하는 곳은 경사지가 되는 것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순부위에 축대 혹은 계단 등을 배치하게 된다. 따라서 계단과 축대를 통해 혈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전제는 가능해진다. 행궁

입지에 있어서 상궐로 들어가는 내삼문 앞쪽의 계단은 <그림 9>와 같이 급격한 경사를 이룬 모습이다. 이는 주룡의 행룡이 멈추면서 전순을 이룬 곳에 계단을 조성한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편, 주룡은 상궐 뒤편에 이르러 <그림 10>과 같이 험한 바위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때 주룡을 따라온 원진수(元辰水)<sup>32)</sup>는 <그림 8>과 같이 행궁 뒤편에서 미세한 물길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물길은 주룡의 지기를 갈무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8\_ 행궁 뒤편의 물길



### 3. 좌청룡에 치우친 행궁 혈처

풍수의 궁극적 목적은 혈을 찾는 것이다. 물론 이곳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건축물을 입지시켜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남한산성에서 가장 풍수적 특징을 반영하여 조성한 곳은 행궁이 입지한 곳이다. 주산과 주룡 그리고 주변 사격들이 어우러져 혈을 맺은 곳에 행궁이 입지한다. 그중에서도 왕의 숙소에 해당하는 상궐이 혈에 해당한다. 이는 풍수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인 혈처에 가장 핵심적인 공간을 배치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산성 행궁이 풍수적 관점에서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궁이 입지한 곳은 완벽한 길지의 조건을 구비한 것은 아니다. 단지 남한산성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는 있겠으나, 길지조건에 부합하는 데는 부족한 모습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균형과 조화라는 전제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산에서 중출로 출맥한 주룡이 보국의 중심에서 행룡을 멈추고 혈을 맺어야 하나, 남한산성 행궁이 입지한 혈처가 좌측의 청룡 쪽에 치우친 모습이다 (<그림 6> 참조).

그림 9\_ 내삼문 앞쪽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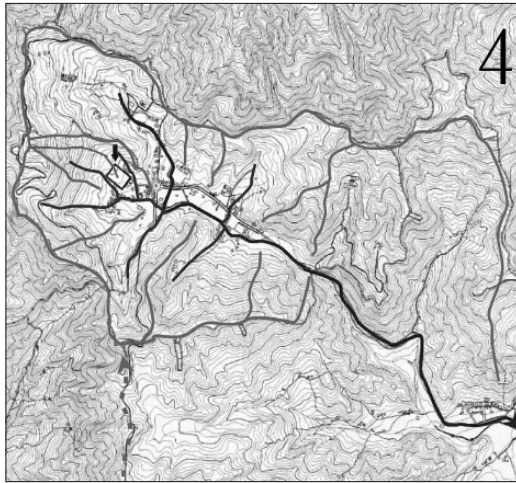


그림 10\_ 상궐 뒤편의 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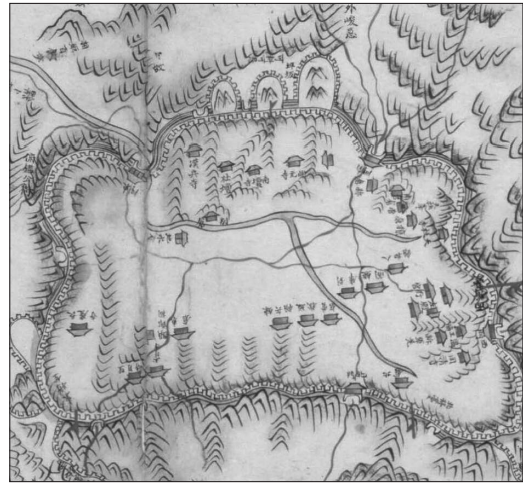
32) 元辰水는 天心水라고도 하며 주룡을 보호하고 따라온 물을 말함. 上分하고 下合하는 원리를 통해 혈처의 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함.

그림 11 \_ 남한산성 산줄기와 물길(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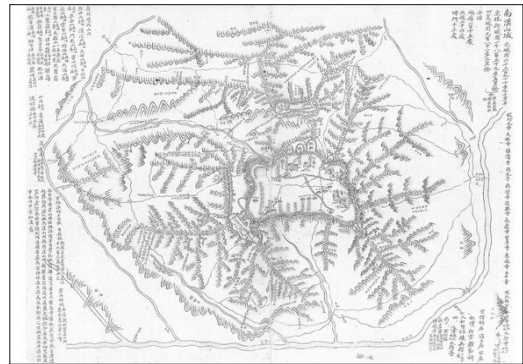
자료: 윤해근, 2007. p33.

그림 12 \_ 해동지도 중 남한산성



자료: 서울대 규장각.

그림 13 \_ 남한산성도



자료: 서울대 규장각.

둘째, 「의룡경」에는 “무릇 주산이 있으면 반드시 마주하여 안산이 있기 마련”<sup>33)</sup>이라 하였으나, 주산에 걸맞은 뚜렷한 안산이 없다.<sup>34)</sup>

셋째, 풍수에서 산을 정하여 음이라 하고 물은 동하여 양이라 하는데, 음양의 조화를 위해서는 물이 혈처를 둥그렇게 환포하는 형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음양의 조화를 주도하는 명당수가 환포하기보다는 무정한 모습이다(〈그림 11〉 참조).

넷째, 전면의 명당이 경사져 있어, 평탄 원만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행궁을 건설한 배경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남한산성 내부에서 우뚝 솟은 청량산에 비견할 만한 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산과 안산 그리고 좌우 청룡백호로 구성된 보국이 현재의 행궁 입지만큼 완비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정남한지」 “궁실”에서 “왕이 거동할 때 머물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유수의 집무실로 지은 것”<sup>35)</sup>이라고 밝힌 것처럼, 왕이 머무는 행궁의 입지가 아닌 유수의 집무실로 선정된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 4. 좌청룡의 환포력 부족

「지리대성산법전서」에는 “무릇 사격이란 생기를 흘

33) 양균승, 2009. p271(大凡有形必有案).

34) 청량산에 비견될 만큼 잘생긴 안산이 없다는 뜻으로, 안산 자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님.

35) 홍경모, 2005. p48(爲留守坐衙之所也).

어지지 않게 모이고 용신과 구혈을 호위하며 국세를 펼치는 데 있다.”<sup>36)</sup>고 하였다. 이를 「회남자」 “병략훈”에서는 “지리란 뒤쪽에 생지가 있고, 앞쪽에 사지가 있으며, 좌측에는 구렁이 있고, 우측에는 계곡이 있는 것”<sup>37)</sup>이라 하였다. 이를 이병도(1986: 25)는 손자병서의 ‘좌우배고 전사후생’에서 나온 말로 해석하면서, 거의 군사 지리상의 상식적인 조건으로 해석하였다.

「선조실록」에는 남한산성의 입지특징에 대해 “둘러싸인 가운데에 완연히 한 도읍이 이루어졌다”<sup>38)</sup>고 하여 보국이 완벽한 곳으로 묘사한다.

이미 여러 고지도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남한산성의 보국은 완벽한 곳이다. 군사적 요소로서 갖춰야 하는 특징적 요소를 갖춘 것으로, 남한산성을 조성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을 「선조실록」에는 “꼬불꼬불한 산굽이가 몹시 깊어 바깥에서 굽어보거나 엿볼 수 없다.”<sup>39)</sup>고 하여 산성이 성립되는 이유까지도 제시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산성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군사적 목적이 강했던 특징들과 부합하는 모습이다. 또한 병자호란과 같은 전시에 왕이 피난처로 인식한 행궁의 입지로서 주변 산세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지형조건은 전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피난처로서의 의미도 가졌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장풍(藏風)은 방풍(防風)과 달리 생기가 응결할 수 있는 독특한 지형조건을 가져야 한다. 주변 사격에 의해 원만한 보국을 만들어야 하고, 최소한 허결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

였다면 비보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도 공결한 부분은 있었고, 이를 비보하기 위해 연못과 정자를 건설하였는데 바로 지수당이다. 「중정남한지」 “누정”에 따르면 지수당은 부윤 이세화가 건설하였다. 원래는 세 개의 연못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두 개의 연못이 있다. 「의룡경」 “단체수언”의 “수구를 완벽하게 닫아주어야 한다.”(양균승, 2009: 334)는 논리에 따라 이 지수당은 수구처가 허결함을 비보하는 목적을 수행한다. 즉,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 물이 흘러나가는 지형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전통건축의 입지선정과 활용성은 지형조건을 특징을 적절히 활용하는 모습을 확인시켜준다. 여기에 더해서 물이 모이는 곳이라서 물을 저장하는 용도와 아울러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정자를 건설함으로써, 경관의 활용성도 가졌다. 그렇다면 행궁 입지의 보국은 어떤 모습인가. 전체적인 틀에서 보국이 완벽한 곳이라는 것은 이미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궁의 보국은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첫째, 좌청룡이 앞으로 쪽 뻗어내려 행궁을 환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둘째, <그림 14>와 같이 전면이 수구가 되면서 앞이 열려 있는 형상이다. 이를 통해 행궁 입지의 한계성을 확인하고 완벽한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선현들의 말을 새삼 되새기게 한다.

## 5. 화성수 형상 물길을 보한 행궁 앞 연못

「관자」 “수지” 편에는 “물이란 땅의 혈기로 사람에

36) 葉九升, 地理大成山法全書, 卷之首上, “釋名部”(上下砂: 夫砂者 所以護龍身衛區穴布局勢者也).

37) 유안, 2001, p404(所謂地利者 後生而前死 左牡而右牝).

38) 宣祖實錄, 卷159, 36년 2월 18일(을사).

39) 宣祖實錄, 卷159, 36년 2월 18일(을사).

그림 14 \_ 남한산성



자료: 조선고적도보.

계 혈맥이 흐르는 것과 같다.”<sup>40)</sup>고 하면서 “물은 모든 기능성의 근원”<sup>41)</sup>이라고 하였다. 물은 곧 생명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는 말로, 물이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제시한 것이다. 즉, 물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다. 남한산성과 행궁의 물길은 <그림 18>과 같이 행궁의 좌측에서 발원한 물길과 행궁 뒤편의 주룽 옆에서 발원한 물길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좌측의 물길이 행궁의 혈과 음양교배를 이루는 명당수에 해당하는데, 앞으로 무정하게 흘러나가는 모습이다. 「의룡경」에는 “두 물길 사이에는 반드시 산이 있기 마련이고 두 줄기 사이에는 반드시 물이 흐르기 마련인데 산과 물이 서로 끼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혈을 맺는 기제와 근원이 된다.”<sup>42)</sup>고 하였다. 행궁의 명당수는 좌우측의 물길이 합수하면서 음양교배를 하고 있지만 다정한 모습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음양교배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주자어류」에는 “하늘에는 봄·여름·가을·겨울이 있고, 땅에는 금·목·수·화·토가 있으며, 인

그림 15 \_ 지수당(止水堂)



자료: 조선고적도보.

간에게는 인·의·예·지 등이 있다.”<sup>43)</sup>고 하였다. 즉,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특징을 설명한 천·지·인 삼합의 원리는, 오행의 형상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따라서 「홍재전서」에는 “수성에도 또한 다섯 가지 형태가 마치 오행처럼 있다.”<sup>44)</sup>고 하여, 물 흐름의 형상을 목·화·토·금·수 형상으로 분류하였다. 물길의 형상을 목·화·토·금·수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토·금·수 형상은 길하고 목성수와 화성수를 흉하다고 인식하였다.

「지리인자수지」에는 “화성수성은 침사파쇄한 것이니 극흉하다.”(서선계·서선술. 1992: 875)고 하였다. 「지리오결」에도 “화성으로 성문을 만들면 크게 상서롭지 못하다. 인성이 오만하고 강푼하다. 혈이 통실하여 등글면 번개같이 성공하나 한번 패하면 잿더미같이 되리라.”<sup>45)</sup>하였다. 즉, 형상이 상서롭지 못하고 굉장히 오만하여 한번 패하면 재기하기 어렵다는 형상이다. 이를 남한산성 행궁에 적용하면, <그림 16>과 같은 화성수 형상에 해당하여, 길한 모습은 아니다.

40) 관자, 2006. p534(水者 地之血氣 如筋脈之通流者也).

41) 관자, 상계서. p534(水 具材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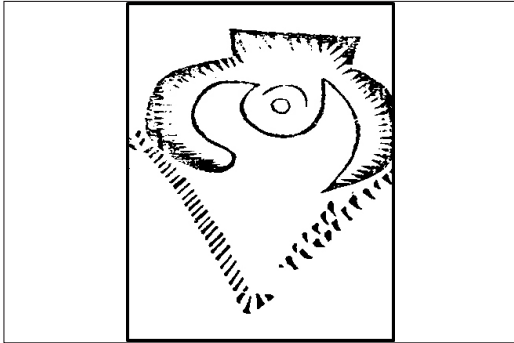
42) 양균송, 2009. p246(兩水之中必有山 兩山之中必有水 山水相夾是機源).

43) 朱熹, “朱子語類”(天有春夏秋冬 地有金木水火 人有仁義禮智).

44) 正祖, 弘齋全書, 卷38, “諭書”(水城亦有五形 如五行).

45) 趙廷棟, 2008. p39(火作城門大不祥 出 人性傲更強梁饒君 穴的如雷發一敗如灰共惋傷).

그림 16 \_ 화성수(火星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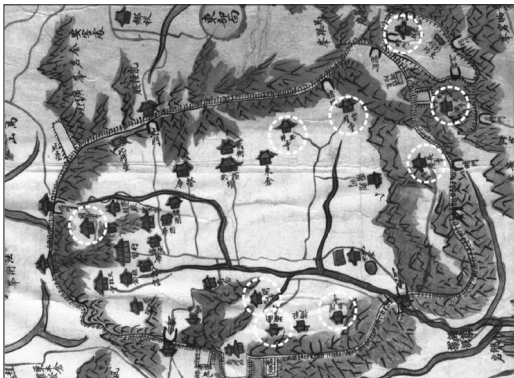
자료: 지리인자수지.

그림 17 \_ 행궁의 연못



자료: 지리인자수지.

그림 18 \_ 남한산성의 물길



자료: 광주부읍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그림 17>과 같이 정문인 한남루를 들어가자마자 방향의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풍수적 관점에서 보면 진응수에 해당한다. 주룡의 기를 갈무리하며 따라온 원진수가 상분하합의 원리에 따라 혈을 맺고 혈 앞에 솟아오른 물이다. 이러한 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물을 담아 놓음으로써 방화수의 역할과 아울러 행궁의 미기후를 담당토록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 6. 「지리신법」에 부합하는 행궁의 좌향

좌향 결정에는 형세론에 충실한 좌향 결정과 이기론에 바탕을 둔 방법이 있다. 물론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 먼저 형세론에 충실한 좌향 결정에는 주산순응형과 안산중시형 그리고 주·안산혼합형이 있다. 반면에 이기론에 바탕을 둔 좌향 결정은 시대적으로 다른 방법이 활용되었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하륜(1347~1416)에 의해 처음 소개된 호순신의 지리신법이 조선 시대 내내 풍미한다. 그래서 조선 중기에 영의정을 지낸 상촌 신희(1566~1628)은 그의 문집 「상촌고」에서 “우리나라는 지리에 대해 오로지 호순신의 법만을 사용하고 있다.”<sup>46)</sup>고 하여 이를 입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에서 좌향 결정의 우선조건은 형세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주자도 「산릉의장」에서 형세를 살핀 후, 좌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형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반드시 먼저 땅의 지세가 굳센지 약한지의 강약을 논해야 하는 것이고, 풍기의 취산을 논하

46) 申欽. 象村稿. 卷33. “說”. 風水家說(我國地術專用胡舜申).

고 수토의 깊고 얇음을 논하며, 혈의 치우침과 바름을 논하고, 역량의 온전함과 부족함을 논한 후에 비교하여 그 땅의 미악인 길흉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사에 실제로 국음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반드시 위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형세가 뛰어난 길지를 얻은 후에 그러한 술법을 얻음이 가당한 것입니다.<sup>47)</sup>

이처럼 좌향론은 그 자체로 존재하기보다는 형세론의 보조적인 의미를 가진다. 남한산성 행궁의 배치는 <그림 19>와 같이 신입수(辛入首)에 신좌을향(辛坐乙向)으로 배치함으로써, 입수룡의 흐름에 순응하는 주산순응형으로 배치하였다. 그러면서 입구 한남문의 배치는 해좌사향(亥坐巳向)으로 배치한 것도, 또한 주룡이 혈을 맺고 남은 여기가 다시 좌측으로

그림 19 \_ 행궁의 좌향 분석



선회한 모습을 따르고 있다. 또한 <표 1>과 같이 조선 시대를 풍미한 호순신의 지리신법과도 부합하는 모습이다. 호순신의 지리신법은 ‘물이 길방에서 와야 하고, 흉방으로 빠져나가야 한다는 것’을 핵심 논리로 한다. 행궁에 대한 호순신의 수법을 적용해 보면, 수국(水局)에서 경방(庚方)은 포태법으로는 생(生)에 해당되고 구성(九星)은 탐랑(貪狼)에 해당되며, 손(巽) 파구는 포태법으로 묘(墓)에 해당되고 구성은 파군(破軍)에 해당된다. 따라서 ‘길한 방위에서 득수하고 흉한 방위로 흘러나가야 한다는 지리신법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있다

## V. 맺음말

본 논문은 남한산성과 행궁 입지의 역사와 풍수적 특징을 각종 문헌자료 고찰과,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정남한지」 「남한」에 따르면 남한산성은 신라 문무왕 때 당나라와의 전쟁 중에 쌓은 주장성이다. 반면에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야승」, 「연려실기술」, 「여지도서」, 「대동지지」 등 대부분의 조선 시대 지지 자료는 남한산성이 백제의 고성임을 밝히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논거는 달리하고 있으나 천연의 요새에 입지하여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도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표 1 \_ 남한산성 행궁의 「지리신법」 적용여부 검토

구분	입수룡	대오형	좌향	득수				파구				부합 여부
				경	생	탐랑	길	손	묘	파군	흉	
행궁	신(辛)	수(水)	신좌을향	경	생	탐랑	길	손	묘	파군	흉	○

47) [宋] 朱熹, 2006, pp530-531(必先論其主勢之疆弱, 風氣之聚散, 水土之淺深, 穴道之偏正, 力量之全否, 然後可以較, 其地之美惡. 政使實有國音之說, 亦必先此五者以得形勝之地, 然後其術可得而推).

의미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특히 조선 시대에 이르러 남한산성은 유사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도성을 지켜주는 보장지로 인식되었다.

「여헌집」과 「우복집」을 통해 성(城)의 입지가 풍수와 밀접하게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남한산성의 입지도 풍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선정되었다. 또한, 식수와 식량의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 특징들은 풍수적 관점에서 논하는 요소와 부합한다. 더 나아가 행궁의 입지도 성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어 풍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먼저 남한산성의 풍수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조실록」에서 ‘둘러싸인 가운데에 완연히 한 도읍이 이루어졌다’ 하여 남한산성의 보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다. 이는 남한산성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군사적 목적이 강했던 특징들과 부합하는 모습이다.

둘째, 장풍은 방풍과 달리 생기가 응결할 수 있는 독특한 지형조건을 가져야 한다. 주변 사격에 의해 원만한 보국을 만들어야 하고 최소한 허결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였다면 비보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도 공결한 부분은 있었고, 이를 비보하기 위해 연못과 정자를 건설하였는데 바로 지수당이다.

「중정남한지」 “궁실”에는 병자호란 당시에 인조가 임어했던 행궁이라고 하면서, 숙종과 영조 그리고 정조가 영릉에 행차하면서 머물기는 하였으나, ‘왕이 거동할 때 머물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유수의 집무실로 지은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남한산성 행궁은 행궁의 역할보다는 유수의 집무실의 성격이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행궁이라 부르고 행궁의 역할도 일부 하였다는 점은 특수한 경우라 하겠다. 특히 병자호란 당시에 인조가 머물면서 전쟁을 지휘한 곳이라 행궁의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남한산성 행궁은 산 위의 분지에 입지한다. 그것도 남한산성으로 둘러싼 지형에 입지하고 있어, 평지에 입지한 일반적인 행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남한산성 행궁이 전시용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남한산성에서 가장 풍수적 특징이 반영된 곳은 행궁이 입지한 곳이다. 주산과 주룡 그리고 주변 사격들이 어우러져 혈을 맺은 곳에 행궁이 입지한다. 그 중에서도 왕의 숙소에 해당하는 상궐이 혈에 해당한다. 이는 남한산성 행궁이 풍수적 관점에서 선정되었다는 전제를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왕이 잠시 머무르는 행궁의 의미와도 부합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궁이 입지한 곳이 완벽한 길지의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남한산성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는 있겠으나, 길지 조건에 부합하는 데 부족한 모습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균형과 조화라는 전제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산에서 중출로 출맥한 주룡이 보국의 중심에서 행룡을 멈추고 혈을 맺어야 하나 남한산성 행궁이 입지한 혈처가 좌측의 청룡 쪽에 치우친 모습이다.

둘째, 주산에 걸맞은 뚜렷한 안산이 없다는 점이다. 「의룡경」에는 ‘무릇 주산이 있으면 반드시 마주하여 안산이 있기 마련’이라 하였으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다.

셋째, 음양의 조화를 주도하는 명당수가 환포하기 보다는 무정한 모습이다.

넷째, 전면의 명당이 경사져 있어 평탄 원만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섯째, 명당수가 무정하게 흘러나가는 모습으로 형상이 상서롭지 못하다. 굉장히 오만하여 한 번 패하면 재기하기 어렵다는 화성수 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행궁을 건설한 배경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남한산

성 내부에서는 우뚝 솟은 청량산에 비견될 만한 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산과 안산 그리고 좌우청룡백호로 구성된 보국이 완비된 곳이 현재의 행궁 입지와 같이 갖춰진 곳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정남한지」 “궁실”에서 ‘왕이 거동할 때 머물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유수의 집무실로 지은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당초에는 유수의 집무실로 선정된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산성과 행궁의 입지특성은 전형적인 장풍국의 형국을 하고 있다. 첩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으로부터 갈무리된 모습이다. 보국의 크기로 양기풍수의 특징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할 때, 남한산성과 행궁의 입지는 그에 합당한 넓은 보국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단지 방어적 특성에 충실한 입지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입지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관자. 2006. 관자. 김필수 · 고대혁 · 장승구 · 신창호 역. 서울 : 소나무.

서선계 · 서선술. 1992. 지리인자수지. 김동규 역. 서울 : 명문당.

양균송. 2009. 감룡경 · 의룡경. 김두규 역. 서울 : 비봉출판사.

유안. 2001. 淮南子. 안길환 역. 서울 : 명문당.

윤해근. 2007. “조선시대 행궁의 풍수입지 연구: 남한행궁과 북한행궁을 중심으로”. 대구한의대 석사학위 논문.

이병도. 1986. 고려 시대의 연구. 서울 : 아세아문화사.

홍경모. 2005. 重訂南漢志. 오성 · 김세민 역. 경기 : 하남역사 박물관.

홍승혁. 2011. “韓國의山城立地에 對한風水論의 研究 : 南漢山城을 中心으로”. 서경대 석사학위 논문.

茶山詩文集.

桐溪集續集.

東國李相國集.

旅軒集.

三國史記.

象村稿.

宣祖實錄.

世宗實錄. 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愚伏集.

仁祖實錄.

林下筆記.

正祖實錄.

趙廷棟. 2008. 地理五訣. 申坪 譯. 서울 : 동학사.

朱子語類.

朱熹. 2006. 山陵議狀. 魯柄漢 譯. 서울 : 안암문화사.

地理大成山法全書.

弘齋全書.

남한산성 행궁. 인사이드 코리아(<http://inkorea.naver.com/>). [2012.12.15].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2012.10.15~2013.4.30].

행궁. 수원화성(<http://hs.suwon.ne.kr>). [2012.10.11].

- 논문 접수일: 2013. 6. 11
- 심사 시작일: 2013. 7. 3
- 심사 완료일: 2013. 7. 25

## Analysis on the Local History and Feng Shui Environment of Namhansanseong Fortress and the Temporary Palace

**Keywords:** Namhansanseong, Temporary Palace, Location, Feng Shui, Propitious Site

In this study, the locational features of Namhansanseong(南漢山城) and its temporary palace(行宮) will be clarified with the view of Feng shui. Namhansanseong was a fortress which had rough topographic condition. And the temporary palace that was located in the fortress was the place for King InJo to command the army at the Manchu war of 1636. The location of Namhansanseong and its temporary palace was selected by Feng shui. Especially, several features of Feng shui were applied to the location of temporary palace. However it did not appear the best condition of Feng shui. Because of the limitation that the palace should have located in inner fortress, there was no room to consider sufficient plots. The place on which the palace was built was the best condition among the inner fortress plots. For this reason, the temporary palace was constructed as an royal office rather than a palace that was its own purpose.

### 남한산성과 행궁 입지의 역사와 풍수환경 분석

**주제어:** 남한산성, 행궁, 입지, 풍수, 길지

본 논문은 남한산성과 행궁 입지의 특징적인 모습을 풍수적 관점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남한산성은 당시 도성의 보장지 성격을 가진 곳으로 자연지형 조건이 요새라 할 만하다. 남한산성 안에 위치한 행궁은 병자호란 당시에 인조가 머물며 전쟁을 지휘한 곳이다. 남한산성과 행궁의 입지는 풍수를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며 특히 행궁의 입지는 풍수적 요소를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최상의 길지 조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산성 내 최상의 입지를 선택한 것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행궁을 행궁으로서 건설하기보다는 유수의 집무실로 건설한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한산성과 행궁의 입지특성은 전형적인 장풍국의 형국을 하고 있다. 첩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으로부터 갈무리된 모습이다. 보국의 크기로 양기풍수의 특징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할 때, 남한산성과 행궁의 입지는 그에 합당한 넓은 보국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단지 방어적 특성에 충실한 입지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입지라 할 수 있다.